

이광수 전(선)집의 구성에 관한 연구

김종수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현대소설 전공
smallis@khu.ac.kr

- I. 문학 정전화와 이광수 전(선)집 연구
- II. 판권의 제약에 따른 신작 위주의 선별: 삼천리사의 최초 전집 기획
- III. 판권 소유에 따라 선별된 선집 기획:
영창서관, 박문서관, 한성도서주식회사의 경우
- IV. 저작권법 제정에 따른 전작(全作) 포섭의 과정:
문선사와 광영사, 삼중당의 경우
- V. 이광수 전집 재간행의 필요성

이 글은 2016년 9월 24일에 개최된 춘원연구학회 주최 제12회 추계학술대회 <자료로 보는 이광수>에서 발표한 것을 당시 토론자들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I. 문학 정전화와 이광수 전(선)집 연구

이 글은 1935년부터 1963년까지 기획·간행된 이광수 전(선)집의 출판 활동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근대 출판시장에서 전개된 이광수 전(선)집 간행의 역사를 재고하여 한국 근대문학 작가의 전집이 구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특정 작가의 “전집”을 간행한다는 것은 특정 작가의 모든 작품을 모아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작가가 문학사적인 인정을 받고 있음을 전제하는 동시에 그 작가의 저작을 모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작가 전집의 간행은 ‘문학 정전화’의 논의와 연관된다. 그동안 ‘문학 정전화’에 관한 논의는 문학교육 연구자들이 주도해왔으나¹⁾ 최근에는 문학전집의 구성과 정전화의 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학전집의 구성과 정전화의 과정, 특히 한국 현대소설 전집의 간행과 연관한 연구는 근대소설 서적의 상품적 속성과 문학의 정전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²⁾

그리고 출판자본 및 대중미디어의 상업적 기획이 문학의 정전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³⁾는 문학사의 정전이 작품의 내적 자질뿐만 아니라 정전 선택을 결정하는 문학 장의 역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문학전집의 간행과 문학 정전화에 대한 논의는 1950-1970년대 문학전집의 출현과 정전화의 상관성으로 확장되었으며⁴⁾, 아동문학전집의 구성이 아동문학 정전을 구성하는 데 끼친 영향력을 고찰하는 것⁵⁾으로도 이어졌다. 여기에 여성문학 전집

1) 그동안 근대문학의 정전화 과정에 개입하는 이데올로기 문제와 문학교육 대상에게 끼치는 정전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대표적으로 차혜영, 『한국 현대소설의 정전화 과정 연구: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18집, 2005, 157-181쪽), 문학교육의 장(場)의 형성과 그에 대한 정전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윤곽도 그려졌다(대표적으로 문영진, 『김동인 소설의 정전화 과정: 회고에서 교육장으로의 진입까지』,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제도』, 소명출판, 2008, 225-250쪽).

2) 강진호, 「한국 문학전집의 흐름과 특성」, 『돈암어문학』 제16집(2003), 355-389쪽; 천정환, 「한국문학전집과 정전화: 한국문학전집사(초)」, 『현대소설연구』 제37집(2008), 85-124쪽.

3) 박숙자, 「1950년대 ‘문학전집’의 문화사」, 『서강인문논총』 제35집(2012), 83-123쪽.

4) 이종호, 『1950-70년대 문학전집의 발간과 소설의 정전화 과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3).

구성을 위한 시론적 논의⁵⁾도 포함한다면 문학전집과 문학 정전화의 상관성은 다채롭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문학전집의 구성과 문학 정전화의 논의는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관여하는 문단 세력의 문학텍스트 선정과 향유과정에 내재한 제도화 과정을 규명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작가 전집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는가? 한국 근대문학 작가의 전집을 간행하려는 주체는 누구이며 간행의 목적은 무엇이고 간행을 가능하게 하는,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은 어떠한가? 이 글에서는 개별 작가 전집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요소를 탐색하고 전집 간행을 계기로 해당 작가가 한국 근대문학의 정전 작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이광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의 전(선)집이 구성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도록 한다.

한국 근대 출판시장에서 이광수는 여전히 인기 있는 작가이다. 2000년대 이후 출판시장에서 그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대학 입시, 논술시험과 같은 교육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⁷⁾, 이광수는 한국의 대중독자들에게 지난 100년 동안 꾸준히 애독된 작가로서 독보적이다. 그래서 한국의 저명인사들이 이광수의 저작을 통해 문학을 알고, 민족적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회고하는 글⁸⁾을 접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또한 문학 교육에서 특히 소설 교육 현장에서 이광수는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학습된다. 일제강점기 문단과 언론계에서의 영향력이 대단하였기에 친일작가로서의 이광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대중독자들에게 각인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전쟁 당시 납북인사로서 주목을 받으며

5) 장수경, 「아동문학전집에 나타난 문화적 상상력과 정전 구성에 대한 욕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1집(2012), 7-42쪽; 조은숙, 「해방-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아동문학전(선)집 편찬과 정전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2013), 259-286쪽.

6)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의 정전 만들기와 번역: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 발간을 위한 시론」, 『비교한국학』 제21권 제2호(2013), 39-65쪽.

7)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출간된 이광수의 『무정』은 각기 다른 출판사 13곳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여기에 오디오북과 만화로 매체 변환되어 출판시장에 상품으로 나온 것을 합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5회에 걸쳐 재간행되었다. 그런데 재간행된 『무정』이 “국어과 선생님이 뽑은-”, “논술문학읽기” 등과 같은 관식을 사용하여 출판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여러 출판사에서 재간행된 데에는 입시 제도의 요구가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8) 예를 들어 송건호의 「문단 42년과 나의 독서편력」(『역사비평』 제1집, 1987, 323-333쪽)과 조동일의 「내 인생의 책들」(《한겨레신문》, 1993년 9월 3일자) 같은 글이 있다.

그의 생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이광수는 격변의 한국 근대사에서 대중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며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하게 구축해 왔다.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라는 이광수에 대한 평가가 문단과 출판계에서 일제강점기부터 논의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작가보다도 먼저 이광수의 전집 간행이 기획되었다. 문단 내에서 신문학에 대한 역사화 과정이 대두되고 전집 간행이 가능할 정도의 자본력이 형성된 출판계의 이해 요구가 호응하면서 춘원 이광수의 전집 기획이 출현한다.

II. 판권의 제약에 따른 신작 위주의 선별: 삼천리사의 최초 전집 기획

근대 출판시장에서 춘원 이광수의 전집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35년 김동환에 의해서였다. 1929년부터 삼천리사(三千里社)를 설립하여 잡지 『삼천리(三千里)』를 창간하며 일제강점기 잡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김동환이 출판 사업으로 처음 간행한 책은 이광수, 주요한, 김동환이 함께 지어 엮은 『삼인시가집(三人詩歌集)』(1929)이었다. 이 책은 현재 1930년 재판, 1934년에 3판을 찍은 것이 확인되는데 시가집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그 당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끈 서적이었다. 잡지 『삼천리』의 대중적 흥행이 지속되고 『삼인시가집』의 인기에 힘입은 김동환은 출판 사업에도 힘을 쏟으며 삼천리사의 사세 확장을 모색한다.⁹⁾ 한편 잡지사 사장이면서 문인이기도 한 김동환은 문단의 인사들과 함께 그동안 조선 사회가 축적한 신문학의 역량을 회고하는 좌담회를 개최¹⁰⁾한다. 이 시기에 근대문학의 전통을 논의하고 작가의 계보를 사고하는 인식이 문단 내 인사들에게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신문학의 역량과 그 역사가 축적되었다는 문학가들의 의식은 근대문학 “전집”의 출현¹¹⁾으로 구체화

9) 정진석, 「巴人 金東煥과 『三千里』」, 『관훈저널』 제63집(1996), 231-233쪽 참조.

10) 편집부, 「春園文壇生活 20年을 機會로 한 文壇回顧 座談會」, 『三千里』 제6권 제11호 (1934), 62-71쪽.

된다. 이때부터 작가의 생멸 연대와 연관되면서 문학을 역사화하는 시선을 바탕으로 전집의 구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¹²⁾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삼천리사는 1931년부터 문학작품을 모은 전집류 출판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였다. 『근대문학전집(近代文學全集)』(1931)을 내놓았고 『조선명작선집(朝鮮名作選集)』¹³⁾(1935)을 기획하였다.

김동환이 시도한 신문학 20년에 대한 회고와 역사화의 결정판은 『이광수 전집(李光洙 全集)』의 기획이었다. 신문학의 시작점을 이광수로 판단한 김동환은 “李光洙文壇生活 20年을 回顧”하고 이광수가 바라보는 “朝鮮文壇의 發展相”¹⁴⁾을 잡지 『삼천리(三千里)』에 연속 게재하고 뒤이어 이광수 전집 간행 계획을 발표한다. “絶世의 大文豪의 讚嘆할 이 業績 實로 人의 天才 萬人의 心靈에 불을 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김동환의 “全集 刊行의 辭”에서는 이광수를 “不世出의 天才”로 평가한다. “新文藝의 길을 獨創의 으로 開拓한” 이광수는 “쉐스피어, 푸시킨, 타고아”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조선 사람에게 감사한 존재인데, “半島社會는 (그를) 保護하지 않고 [...] 迫害”하였다. “그러나 이쌍 山河와 이쌍 兄弟를 사랑하는 그의 至精은 變할줄 몰나서 오늘날까지 殉教者와가치” 살아가는 그를 위해 “後世에 끼쳐야할 義務를 짓고 이에 全集을 刊行”¹⁵⁾한다고 김동환은 글을 마무리한다. 김동환의 간행사에 바로 뒤이어 이광수의 “인사말씀”이 실려 있다. 춘원은 “조선 사람을 향하여 내속을 呼託하느라고 소설과 노래와 評論을” 쓴다고 말하고 자신의 소원은 “오직 조선 사람들이 나쓰는 글을 읽어주어서 내가 하라는 말을 또 뜻을 알아들어주었으면 하는 것 썬”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글에 대해 “붓그러움과 괴막힘이 만히” 있고 앞으로 “더욱 힘쓰리라는 맹세”를 하는 춘원의 인사말은 자신의

11)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출판사였던 영장서관의 사장 강의영은 한 인터뷰에서 문학전집 간행이 돈벌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집 간행이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이라고 말한다(강의영, 「出版業으로 大成한 諸家의 抱負: 尺牘類에서 産聲을 發한 永昌書館의 今, 只수는 年 六萬餘圓의 賣上」, 『朝光』 제4권 제12호, 1938, 319쪽). 1930년대 후반 조선 출판계에서 문학전집 간행이 유행한 데에는 당시 일본문단과 일본 출판계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12) 천정환, 앞의 논문, 88-95쪽 참조.

13) 三千里社에서 간행한 『朝鮮名作選集』은 이인직, 이광수, 홍명희에서 시작하여 방인근, 현인택으로 마무리된다. 신문학의 시간적 전개과정에 맞춰 작가와 작품을 배치한 것이다.

14) 李光洙, 「最近朝鮮의 轉變 25年間-朝鮮文學의 發展, 庚戌以來 25年間」, 『三千里』 제6권 제7호(1934), 76쪽.

15) 金東煥, 「全集 刊行의 辭」, 『三千里』 제7권 제6호(1935), 6쪽.

삶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두 글을 종합해보면 민족을 위한다는 이광수의 집필 논리를 적극 옹호하면서 이광수의 희생정신을 받아들여 한다는 김동환의 이광수에 대한 숭앙의지가 『이광수 전집』을 기획한 의도로 이해된다.

1935년 7월 삼천리사에서 기획한 『이광수 전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권 政治論文集 『民族的 經綸』(主要 內容) 論文 「民族的經綸」, 「民族改造論」
新聞論說 「一事一言」 尹致昊·李商在 等 人物評論 等等
- 2권 『文學評論集』(主要 內容) 「中庸과徹底」, 「文學講話」, 「人生과 藝術」, 「푸로文學과 暁문文學」, 「文學을 배우려는이에게」, 「朝鮮文學의 定義」, 「民謠小考」
- 3권 長篇小說 『그 女子의 一生』 朝鮮日報連載中の 處女篇·戀愛篇
- 4권 長篇小說 『그 女子의 一生』 朝鮮日報連載中の 結婚篇·悔恨篇·彷徨篇
- 5권 『短篇小說集』 短篇小說 「엇던아침」, 「嘉實」, 「어멈」, 「H君에게서온便紙」,
이밖게 新作 數篇
- 6권 長篇小說 『千眼記』 東亞日報에連載하였든長篇 『千眼記』와 또中篇 「革命家의안해」, 「검등의설움」
- 7권 『戲曲集』 新作戲曲3篇(未發表分) 『殉教者』, 톨스토이原作 『어둠의힘』, 썩스 피어原作 『싸사』
- 8권 『詩集』 新作, 詩, 時調百餘篇 及 워드 워즈譯詩 其他 譯詩集
- 9권 紀行文集 『내 半島江山』 「五道踏破記」, 「金剛山遊記」, 「多島海紀行」, 「南遊雜感」, 「上海에서」, 「滿洲遊記」
- 10권 『自敍傳』 새로 自敍傳을 執筆하는 外에 『人生의 香氣』, 『東京留學生時代의 日記』, 『書翰集』, 『日記』, 『隨筆』等等¹⁶⁾

삼천리사가 기획한 『이광수 전집』은 일간지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는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광수가 “二十年來 써온 政治, 社會, 文化 등 各方面의 著述을 전부 收載하리라 하니 春園著作의 集大成이 이에 實現될 것¹⁷⁾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동환은 자신이 기획한 『이광수 전집』의 간행이 사회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기 위해 당시 조선 사회의 저명한 사회 인사들의 변(辯)을 『삼천리』에 게재하고 신문광고에도 활용한다. 『이광수 전집』 간행 편집 위원으로 12인(홍명희·김동인·한용운·현빙허·염상섭·장혁주·전추

16) 『三千里』 제7권 제6호(1935), 8-9쪽.

17) 「三千里社〈春園全集〉刊行」, 《동아일보》, 1935년 8월 15일자.

호·김석송·이태준·주요한·김안서·김동환)을 구성하고, 송진우·여운형·허헌·김병로 등 정치·사회·교육·문학회 인사들의 간행 축사를 『삼천리』에 게재¹⁸⁾함으로써 조선 사회 지도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여론화하며 전집 간행의 정당성을 만방에 알린다.

사실 삼천리사의 전집 목록을 일별하면 알 수 있지만 이 전집에는 그동안 대중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이광수의 주요 소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대중들에게 큰 인기가 있던 이광수의 소설은 판권이 다른 출판사에 있기 때문에 삼천리사로서는 이미 출간된 작품을 단행본으로 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삼천리사에서는 이광수의 작품 중 유독 새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기 작품을 수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간행작(未刊行作)”과 “신작(新作)”을 전집 구성의 특징점으로 제시한다. 신작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대중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전집 간행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 춘원이 발표한 작품들의 집대성을 강조한 점을 상기한다면 이 같은 전집 목록은 논리적인 모순에 처하게 된다. 2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해온 이광수의 저작을 수집, 정리하여 그의 전집으로서의 가치를 종합하겠다는 전집 간행의 대의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간행된 새로운 작품으로 전집을 구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동환이 기획한 삼천리사의 『이광수 전집』 간행은 당시 사회 인사들을 끌어들이며 대중적 관심을 끌었지만, 상업적인 목적만 두드러진 기획과 비양심적인 출판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광수 전집』 간행 소식을 접한 김남천은 세 차례에 걸쳐 신문에 기고한 글¹⁹⁾을 통해 춘원이 조선문학예술에 기여한 “예술적인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삼천리사의 전집은 “춘원문학의 시대성을 정당히 파악할 수 있는” 전집 간행의 사회적 의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12명의 편집위원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편집위원에 올라 있고, “각계 명사의 축언도 수차 거절하매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 이용했다는 전언을 제시하며 삼천리사 전집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광수 전집』 간행에 대한 김남천의 비판은 작가 전집의 문학적·출판문화적 문제점을 지적한

18) 편집부, 「全集에 대한 社會人事의 辯」, 『三千里』 제7권 제6호(1935b), 10-21쪽.

19) 김남천, 「文藝時感(5-7): 李光洙 全集 刊行의 社會的 意義」, 《朝鮮中央日報》, 1935년 9월 5-7일자.

최초의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전집 간행이 출판사의 상업적 목적에 좌우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전집 간행의 엄정한 기준과 작가의 문학적 가치에 집중된 작품의 엄선을 강조한 김남천의 지적은 한국 근대문학 작가 전집의 간행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1935년 삼천리사에서 기획한 『이광수 전집』은 비록 계획한 대로 완간된 것은 아니지만²⁰⁾, 출판산업과 연관된 전집 간행의 작업이 이광수에 대한 문학적 평가를 동반한 첫 사례이고, 조선 근대문학의 시작점으로 이광수를 설정하여 조선 근대문학의 역사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기에 전집 간행을 기획한 김동환의 “全集 刊行의 辭”에서 언급하는 이광수 전집 간행의 의의는 이후에 출판사나 문인들이 이광수 전(선)집을 간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논리와 수사의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김동환은 이광수를 평범하지 않은 “천재” 작가이고 조선문학을 만들어낸 “개척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광수는 “세계적인 문호”(혹은 그들과 비교되는 존재)이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오히려 “박해하”기까지 하며), “후세에 (이광수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전집을 간행할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광수에 대한 김동환의 평가는 일제강점기 이광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조선 문학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즉 세계문학에 대한 열등적 심리가 제국의 식민지 작가인 이광수에 대한 민족적 기대로 전환되고, 이광수의 행적에 대한 민족 내 비판을 이광수에 대한 동정적이고 호의적인 정서로 은폐하면서 이광수 전집을 적극적으로 상업화한 최초의 사례가 삼천리사의 기획인 것이다. 이 같은 이광수의 민족적 문호(文豪)화의 과정과 정서적인 동정 여론은 1950-1960년대까지 전집이 간행될 때마다 이광수를 평가하는 논리와 수사로 동원된다.

1930년대 김동환이 기획한 이광수 전집은 조선 근대문학을 역사화하려는 김동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광수를 조선의 대표적인 근대문학 작가로서 제시하면서 그의 문학사적 평가를 염두에 둔 김동환의 전집 기획은 작품의 선별과정에서 난항을 겪게 된다. 여기에는 당시 출판계의 관련 관행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 인기 있었던 이광수 소설의 대다수를

20) 삼천리사가 실제로 간행한 『이광수 전집(李光洙 全集)』은 1회 배본으로 3권 『그 女子의 一生:處女篇·戀愛篇』만 1935년에 간행된 채 나머지는 출간되지 못하였다.

이미 다른 출판사들이 판권을 가지고 판매·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동환의 의도에 맞는 전집 구성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김동환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작품을 제외하고 신작을 위주로 한 작품 선별을 기획한다. 『이광수 전집』을 출간함으로써 조선 근대문학의 역사화를 시도하려던 김동환은 판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작 위주로 작품을 선별하여 전집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Ⅲ. 판권 소유에 따라 선별된 선집 기획: 영창서관, 박문서관, 한성도서주식회사의 경우

일제강점기 대표적 인기 작가였던 이광수 저작의 판매량은 그 시기 출판시장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²¹⁾ 이광수 작품의 출판권은 출판사들의 큰 재산이었으며 출판업자들은 이광수에게서 판권을 양도받기 위해 거액을 지불²²⁾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광수의 저작물을 간행하고 주요 작품의 판권을 소유한 출판사들은 한성도서주식회사, 박문서관, 영창서관 같은 조선 굴지의 출판사들이었다. 이 출판사들은 1930년대 후반 근대문학 서적 출판에 주력하면서 문학전집 사업에 앞다투어 뛰어들었는데 문학전집 출판의 중심에는 이광수의 작품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영창서관은 1939년부터 1941년 사이에 『춘원이광수걸작선집(春園李光洙傑作選集)』 5권(목록은 〈부록〉의 표1 참조)을 기획 출판하였다. 영창서관의 『춘원이광수걸작선집』은 1935년 삼천리사가 기획하였던 『이광수 전집』과 유사하게 당시 대중독자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은 작품들

21) 당시 서적 시장조사 기사에서 이광수 서적의 판매량이 자세히 소개된다. “李光洙의 歷史小說 『麻衣太子』, 『李舜臣』의 販賣量이 四千部를 넘겼고 純文藝作品인 『無情』, 『開拓者』, 『再生』이 出版된 지 오래지만 四千部 가까이 販賣되었으며 最近에 出版된 『흙』 역시 三版을 印刷中이어서 四千部를 무난히 突破할 것.” 편집부, 「書籍市場照査記, 漢城, 以文, 博文, 永昌 등 書市에 나타난」, 『三千里』 제7권 제10호(1935a), 136-139쪽.

22) 이광수는 『사랑』의 판권을 박문서관에 3,600원에 팔았다. 춘원이 1940년까지 받았던 원고료와 판권을 매도한 액수를 합산한 총액은 10만 원에 이른다. 편집부, 「機密室-우리社會의 諸内幕」, 『三千里』 제11권 제3호(1940), 27쪽.

은 아니다. 1918년 『무정』 단행본 간행 이후 조선 출판시장에서 이광수 저작들이 열렬한 사랑을 받아 기 발표한 글들을 새롭게 묶어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던 이광수와 그 주변 인물이 영창서관을 통해 새롭게 출판하는 책들을 선집으로 엮은 것이다. 이광수 흥행작들 다수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던 한성도서주식회사와 박문서관과는 달리 뒤늦게 근대문학 서적 시장에 뛰어들어 영창서관 입장에서는 흥행보증수표인 이광수의 새로운 저작을 “결작(傑作)”이라는 관식(冠飾)을 붙여 선집으로 간행한 것이다. 『춘원이광수결작성집』의 인기와 『조선작가명작전집(朝鮮作家名作全集)』의 판매고에 힘입어 영창서관은 1939년부터 1941년 사이 조선 출판사 중에서 영업세액이 세 번째로 많은 대형 출판사가 될 수 있었다.²³⁾

영창서관이 이광수 서적을 이광수 선집으로 집중 간행하던 때에 한성도서주식회사와 박문서관은 이광수의 작품을 내세워 소설전집의 기획물로 구성하였다. 박문서관은 『현대결작장편소설전집(現代傑作長篇小說全集)』의 1-2권으로 이광수의 『사랑』 전(前)·후(後)편을 출판하였고 『신찬역사소설전집(新撰歷史小說全集)』의 기획 속에 이광수의 『세조대왕(世祖大王)』을 간행하였다.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현대조선장편소설전집(現代朝鮮長篇小說全集)』의 3권은 이광수의 『이차돈(異次頓)의 사(死)』였다. 전집기획물로 간행한 이광수 작품 외에도 한성도서주식회사와 박문서관은 일제강점기 이광수 인기 작품의 판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박문서관은 『무정(無情)』, 『개척자(開拓者)』, 『재생(再生)』, 『마의태자(麻衣太子)』, 『허생전(許生傳)』, 『단종애사(端宗哀史)』, 『사랑』, 『이광수단편선(李光洙短篇選)』, 『춘원시가집(春園詩歌集)』 등의 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한성도서주식회사는 『일설춘향전(一說春香傳)』, 『혁명가(革命家)의 안해』, 『흙』, 『이차돈의 사』, 『유정(有情)』, 『군상(群像)』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출판업의 유행을 이끌며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낸 이 두 출판사의 경제적 성장에는 이광수 저작이 일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일제강점기와는 다르게 변화된 출판환경 속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대표적인 출판사였던 한성도서주식회사, 박문서관, 영창서관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 출판사들이 영락해가는

23) 최호석, 「영창서관의 고전소설 출판에 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37집(2010), 357-358쪽 참조.

회사를 되살리고자 모색한 방법은 일제강점기에 큰 영업이익을 가져다준 이광수의 저작을 묶어 흥행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었다. 박문서관은 『춘원선집(春園選集)』이라는 기획물로, 한성도서주식회사는 『이광수대표작(李光洙代表作)』이라는 표제를 달고 출판시장의 불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1950년 2월 박문서관이 기획한 『춘원선집』은 보유하고 있던 판권을 바탕으로 총 10권을 구성하여 광고하였다. 다음은 박문서관의 『춘원선집』에 대한 광고문이다.

우리 新文學의 開拓者요 文壇의 巨匠인 春園李光洙의 衰毀와 試鍊과 苦難의 半生! 이동안 無數한 作品中에서 精選한 것으로 肺腑를 찌르는 듯한 歷史小說과 人間 現實을 描破한 現代小說의 珠玉篇들을 여기에 모았다. 우리는 人間 春園을 論하기 전에 無際無涯 深奧幽玄을 極한 文學을 愛好하고 鑑賞하려면 누구나 案頭에 이 選集을 갖추시라.²⁴⁾

1950년 박문서관에서 『춘원선집』을 간행하면서 광고한 내용은 “開拓者”, “苦難의 半生”, “珠玉篇”을 강조하며 독자의 구매욕을 부추기고 있다. 전집이 아닌 선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광수의 저작 중 역사소설과 “現代小說의 珠玉篇”이라는 수사를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박문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판권 작품들을 포괄하면서 문학적 가치와 연관 짓기 위한 것이다. 출판사의 광고문, 특히 사세가 기운 출판사가 재기를 갈망하며 제시한 광고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광수 선집 간행의 구성 논리와 이광수에 대한 평가의 수사는 1935년 삼천리사의 전집 간행문보다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54년 2월 한성도서주식회사 역시 『흙』, 『이차돈의 사』, 『유정』, 『군상』, 『일설춘향전』 5권을 『이광수대표작(李光洙代表作)』이라는 이름으로 구성하여 광고하였는데, 이 경우도 박문서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던 일제강점기 판권에 의지해 제한적이고 임의적으로 이광수 선집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24) 《경향신문》, 1950년 2월 5일자 광고. 박문출판사의 『春園選集』 광고를 보면 “1권 『端宗哀史』(發賣中), 2권 『사랑』(印刷中), 3권 『麻衣太子』(印刷中), 4권 『無情』(印刷中), 5권 『世祖大王』, 6권 『開拓者』, 7권 『許生傳』, 8권 『再生』, 9권 『春園短篇選』, 10권 『春園詩歌集』”으로 선집을 구성하고 있다. 『단종애사』는 1950년 1월에, 『사랑』은 3월에 출간된 것이 확인된다. 3권 이후 작품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출판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창서관의 『춘원이광수결작선집』, 박문서관의 『춘원선집』, 한성도 서주식회사의 『이광수 대표작』은 한국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대중적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획물이었다. 시장의 흥행보증 상품으로서 이광수 저작은 주요 장편소설에서 확장되어 춘원의 수필, 시가, 평론까지도 인기를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 최대 흥행 소설들을 “선집”, “대표작”으로 묶어 간행함으로써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후 한국전쟁기까지 경제적 불황과 출판업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광수 소설에 대한 대중들의 흥미와 관심을 충족시켜주었다. 문학사적 의미와 출판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전집 간행이 관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출판사의 입장에서 흥행작 위주의 선집을 엮어내는 것은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획상품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중독자에게 인기 있는 서적의 판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선집”, “대표작”, “결작선”이라는 이름으로 기획 간행물이 다수 출판되는 관행은 이 당시부터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²⁵⁾ 출판사의 기획물로 재구성되어 반복적으로 출판되는 작품들은 출판시장에서의 상업적 성공과 연동하며 대중독자에게 명작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광수 선집에 포함되었던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대중독자와 접촉하면서 명작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된다.

김동환의 전집 기획 시도와는 다르게 이광수의 대표 소설의 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주요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업적 전략으로 선집을 발간하였다. 이 선집들을 구성하는 작품 선별의 기준은 해당 출판사의 판권 소유 여부에 따른 것으로 각 선집은 출판업자의 영업이익을 고려한 기획었던 것이다.

25) 1963년 『이광수 전집』을 간행한 이후 삼중당도 1968년에 주요 소설로 구성된 전12권 『이광수대표작선집(李光洙代表作選集)』을 간행하고 이광수 저서 판매의 다각화를 꾀하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IV. 저작권법 제정에 따른 전작(全作) 포섭의 과정: 문선사와 광영사, 삼중당의 경우

이광수 저작의 전집 간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여러 출판사에 산재해 있던 작품의 판권 때문이었다. 이광수 작품의 판권이 큰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 판권을 사서 모으지 않는 이상 모든 작품을 모아 출간하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국내에서 문학작품의 저작권 보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작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957년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에는 “해방 전 저작권 매매는 무효로 한다”는 부칙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광수 저작의 판권을 가지고 있던 각 출판사들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출판계의 분위기 속에서 이광수 저작물의 전모를 구축하기 위한 전집 구성의 논의가 시작된다. 그 시작으로 문선사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광수 저작물의 수집에 관심을 갖고 『춘원문고(春園文庫)』를 발행한다. 아래는 이광수 전집 구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춘원문고』의 간행취지이다.

『春園文庫』發刊趣旨

우리나라 現代文學의 開拓者이며 最高文豪로서의 春園李光洙先生은 偉大한 存在이다. 愛情과 聰明과 熱意에 빛나는 全春園文學은 小學生으로부터 白髮教授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愛讀者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의 後孫에까지 永久히 傳해 줄 귀중한 作品들이다.

그러나 春園先生은 六·二五動亂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消息이 渺연하여 生還을 빌고 있거니와, 그 밖에도 두가지의 슬픈 사실이 있다. 하나는 先生의 存命中에 「노오벨賞」을 받지 못할까하는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春園全集」이 成就되지 못한 일이다.

「春園全集」의 最大難關은 現在 分散되어 있는 所謂 版權收合問題에 걸려있다. 이 問題가 解決날 때까지 弊社에서는 春園夫人 許英蕭女史의 協助를 얻어서 全集事業의 하나의 準備로서 이에 「春園文庫」를 發刊하게 되었다.

第一次刊行으로 우선 十二卷을 選定하였으나 完了 되는대로 十三卷以下를 繼續刊行할 計劃이며, 특히 本文庫로서의 자랑은 아직까지 책으로 되어 세상에 나오지 않은 名作·秘稿의 五卷을 新刊하는데 있다.

문선사의 간행취지에서는 『춘원문고』가 『춘원전집(春園全集)』의 준비 단계임을 표방하면서 이광수를 “開拓者”, “最高 文豪”로 규정하고 그의 작품이 “후손에 물려줄 귀중한 작품”임을 강조한다. “板權收合問題”를 해결하려 한다는 의지 외에 춘원 작품으로 “노오벨賞” 수상의 기대를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주목된다. 식민지 시기부터 조선문학가들이 도달해야 할 세계문학의 정점으로 꼽았던 노벨상 수상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이광수임을 내세워 이광수의 위상을 세계적인 작가로 격상시키고 있다. 1935년 삼천리사의 간행사에서도 나왔듯이 이광수라는 조선문학의 천재 개척자의 가치는 조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호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 1950년대적 상황, 전쟁의 비극으로 남북되어 생사를 알지 못한다는 이광수에 대한 걱정이 『춘원문고』 간행취지 전문을 지배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고난받은 이광수에 대한 전집 간행 주체의 연민의 정서는 1950년대 남북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이광수의 처지를 환기하는 것으로 변주되어 천재이자 세계적 문호인 이광수에 대한 연민은 보다 강화된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전집 구성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새롭게 춘원을 조명하고자 기획된 『춘원문고』도 저작권 문제로 방대한 이광수 저작물을 포섭하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문선사가 제시한 12권도 모두 출간되지는 않은 채 단편적으로 출판되었다(『춘원문고』 목록은 〈부록〉의 표2 참조).

이처럼 출판계에서 전개되는 이광수 전집에 관한 관심과 맞물려 당시 문단에서도 이광수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조연현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은 『현대문학(現代文學)』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화를 전개하기 위해 문학사 서술과정에서 이광수를 한국 근대문학의 중심인물로 부각시킨다.²⁶⁾ 문단의 인사들과 문학사가의 이광수에 대한 적극적이며 우호적인 평가와 연결되면서 이광수 전집 간행은 한국 문학계의 중요한 현안이 된다. 특히 “노오벨賞”²⁷⁾을 의식하는

26) 1950년대 조연현과 『현대문학(現代文學)』지를 중심으로 남한 문단에서 이광수의 현대 문학사적 의미를 조명한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김중수, 「1950년대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 『우리문학연구』 제43집(2014), 375-377쪽 참조.

27) 1970년 1월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서는 이광수의 「무명」을 노벨문학상 후보작으로

한국문학계의 세계문학 도달에 대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작가로 이광수가 호명되면서 이광수 전집 간행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또한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납북된 이광수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광수의 아내인 허영숙이 이광수의 활동과 업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한다. 허영숙은 광영사를 설립하고, 산재한 이광수 저작의 판권을 수합하여 『춘원선집』을 출판²⁸⁾하는데,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총 24권으로 완간된 『춘원선집』(자세한 목록은 <부록>의 표3 참조)은 1957년 한국의 저작권법의 발효 덕분에 일제강점기부터 산재해 있던 이광수 저작물을 기획물로 묶어 종합적으로 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9년 완간된 광영사의 『춘원선집』은 기존 각 출판사에서 쓰던 낡은 지형을 가져다가 인쇄한 것이었다. 이에 삼중당²⁹⁾은 새롭게 인쇄된 온전한 『이광수 전집』의 출판 계획을 세운다. 당시 간행의 실무를 담당할 노양환에 따르면 바로 이즈음에 “책으로 출간되지 않은 이광수의 모든 각종 문장을 총수집해서 20권 정도로 간행하겠다는 계획”³⁰⁾을 수립하였다. 허영숙과 함께 이광수 작품의 지형 매입에 힘을 쓴 김용제(金龍濟)³¹⁾의 권유로 허영숙은 1961년에 삼중당과의 전집 간행 계약을 체결하고 1962년 4월에 제6권을 시작으로 출간하기 시작하여 1963년 10월 제20권을 마지막으로 완간한다.

추천하였다.

28) 이광수의 미망인 허영숙의 출판활동과 납북자 이광수에 대한 복권 운동에 대해서는 김종수, 앞의 논문, 373-380쪽 참조.

29) 이광수와 삼중당의 인연은 1939년 간행된 『춘원서간문범(春園書簡文範)』에서 시작되었다. 삼중당 사장 서재수의 회고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8만 부를 발행하였다고 한다. 1931년 관훈동에서 책방을 겸해 설립되었던 소규모 출판사 삼중당은 이것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후반 급속도로 성장하고 1990년까지 한국 출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30) 노양환, 「위대한 민족유산의 이광수전집」, 『기러기』 제165호(1979), 46쪽.

31) 노양환의 회고에 따르면 1950년대 산재해 있던 이광수 서적의 판권 및 지형을 수집하여 허영숙을 도와 『춘원문고(春園文庫)』와 『춘원선집(春園撰集)』을 엮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용제이다. 김용제는 1909년 충북 음성태생의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이다. 식민지 후반 대표적인 친일문인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반공작가로도 활동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시스템> 참조(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7HIL_A1909_1_0027028)]

한편 김용제가 『홍사단 50년사』를 쓴 것으로 보아 홍사단 인사로서 이광수와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다시피 이광수는 1947년 홍사단의 요청으로 『島山安昌浩』를 집필, 발표하면서 해방 후 활동을 유지하였다. 김용제가 이광수, 허영숙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홍사단을 매개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중당이 완간한 『이광수 전집』은 춘원이 작품 활동을 한 34년 7개월 동안에 쓴 장편 26편, 단편 25편, 수필 117편, 시 389편, 논문 80편, 소품 기타 197편을 담았다.³²⁾(삼중당 간행 『이광수 전집』의 목록은 〈부록〉의 표4 참조) 삼중당에서 간행한 『이광수 전집』은 작품 위주의 선집 형태에서 벗어나 작가가 쓴 모든 글을 수집하여 포섭한 전집의 모습을 띠었다는 점에서 문학과 출판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 전집은 제도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전작 수록이 가능해졌다는 의의가 있다. 삼중당 전집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던 정비석은 『이광수 전집』의 간행을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당시 출판계의 불황 속에서도 『이광수 전집』 간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았다.³³⁾ 전집 간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광수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았다. 특히 1963년 11월 13일에 홍사단과 삼중당 주최로 ‘이광수전집 완간 기념 강연회(李光洙全集 完刊 紀念 講演會)’가 개최되어 이광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다. 강연회에서는 주요한이 「춘원(春園)의 생애(生涯)와 사상(思想)」, 전광용이 「춘원(春園)의 문학사적(文學史的)인 위치(位置)」, 김우종이 「춘원(春園)이 문체운동(文體運動)에 끼친 공적(功績)」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196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조성된 이광수 작품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이 지속³⁴⁾되면서 삼중당에서 간행한 『이광수 전집』은 1960년대 후반까지 대중독자들의 열광적인 관심 속에서 큰 인기를 유지하였다.³⁵⁾

다음은 1963년에 『이광수 전집』이 완간되면서 전집의 편집위원이었던 정비석이 쓴 간행취지문이다.

32) 노양환, 앞의 논문, 47쪽.

33) 당시 『이광수 전집』 간행은 출판계의 큰 소식이었다. 이를 다룬 당시 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생명이 긴 숨은 베스트셀러」, 《경향신문》, 1962년 10월 24일자; 「출판계 우울한 가을맞이」, 《경향신문》, 1963년 8월 20일자; 「2월과 춘원」, 《동아일보》, 1964년 2월 3일자 등.

34) 전후 복구와 경제 개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60년대 독서대중에게 영향을 끼친 멜로와 송고의 감동요소를 춘원의 작품들이 풍부하게 담고 있었기에 이광수가 당시 대중작가로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권보드래,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송고」, 『상허학보』 제37집(2013), 279-320쪽 참조.

35) 《동아일보》, 1967년 3월 2일자 기사에 실린 「베스트 리더」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열람자대출 빈도수를 근거로 하여 국내소설부문 1위에 이광수 전집이 올라 있음을 알리고 있다.

춘원은 50년의 역사를 가지는 우리나라 신문학의 개척자인 동시에 아직까지는 누구누가 추종하기 어려운 대작가이셨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개척자란 대개 개척자로서의 공로는 크다할지라도 그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후배에게 뒤지기 쉬운 법인데 춘원에 한해서는 개척자이면서도 이미 세계적인 대작가들과 어깨를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작품수준이 높았다. 이로보면 춘원은 천래의 대문호였었다. 그와 같이 위대한 문호의 고전적 가치를 지닌 전집이 완간되었으니 이는 우리 문학계의 일대경사인 것이다. 둘째 개인 전집으로서 이렇게 완벽을 기한 전집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 작품 위주의 전집을 지양하고 작가 자신의 손이 간 글은 일구도 빠짐없이 수집수룩했기 때문에 [...] 개인 전집 간행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룬 금자탑적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³⁶⁾

삼중당에서 간행한 『이광수 전집』 편집위원인 정비석이 신문에 기고한 위 간행취지문에서도 이광수는 “개척자”, “세계적인 대작가들과 어깨를 겨룰 대문호”로 평가된다. 이 전집이 “개인 전집 간행의 신기원”을 이룩한 한국문학사의 사건임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20권을 책장에 장식하고 애독”할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1935년부터 전개되었던 이광수 전(선)집의 간행 취지 및 광고기사의 특징을 모두 담고 있다. 이광수 전집 간행을 통해 춘원 이광수의 한국 문학사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세계문학적 위상도 포괄하는 이광수의 평가가 반복되고 있으며 간행 전집의 출판문화적 의의를 강조하고 전집의 구매의욕을 고취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출판사 입장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삼중당의 『이광수 전집』이 이광수의 전 작품을 수록한 전집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문학 연구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는 이유는 바로 전집의 편집방침 때문이다. 당시 편집위원들은 편집방침의 하나로 이광수 전집에서 친일적인 문장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광수의 글 중 “논설은 한글로 풀면 뜻을 전달하기 어려우니 국한문 원문대로 할 것, 소설은 대중 독자들에게 잘 읽힐 수 있도록 한글로 바꿀 것,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일반 대중독자를 고려하여 현행 철자법에 따를 것, 이광수의 문장은 장르별로 나누어 수록할 것 등”을 정했다고 한다.³⁷⁾ 삼중당의 『이광수 전집』은 유족과 편집위원들이 의도적으로 친일적인 문장을 제외하고 대중독자를 염두에 둔 율문과정이 심하여

36) 정비석, 「개인 전집 간행에 신기원」, 《경향신문》, 1963년 11월 27일자.

37) 최주환, 「이광수 문장집의 어제와 오늘」, 『근대서지』 제12집(2015), 236-239쪽.

수록 작품의 연구 가치가 훼손된 경우가 다수 있음을 기존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⁸⁾

V. 이광수 전집 재간행의 필요성

30여 년 동안 이광수 저작들은 작품 선별에서 전작(全作) 포섭의 과정을 거쳐 1963년에 『이광수 전집』이 완간되었다. 이광수 전(선)집의 제작은 출판업자-유족-문인들의 협력으로 완성되었고 이광수 전(선)집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광수는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로서 위상을 공고하게 구축하게 된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전 작품을 아우르는 전집 간행 과정에서 그의 친일행적은 은폐되고 한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정전의 작가로서 정립된다.

본론에 다루었듯이 1935년 삼천리사의 기획부터 시작하여 1963년에 삼중당이 전집을 완간하는 과정까지 비록 30여 년의 한정된 시간적 범위이기는 하지만 이광수 전(선)집을 둘러싸고 전개된 문학 장에서 전집을 구성하려는 주체들의 인정투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수 저작을 중심 콘텐츠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출판업자들의 기획과 이광수의 문학적 업적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근거로 한국 근대문학을 역사화하고 세계문학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문학가들의 이념, 이광수의 복권을 실현하겠다는 유족의 의지가 이광수 전(선)집의 구성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이광수 전(선)집 간행의 역사는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삼중당에서 『이광수 전집』을 발간한 후 편집실무를 담당했던 노양환이 세운 우신사에서 1979년 이후로 삼중당본 『이광수 전집』을 재간행해오고 있다. 그 후 <춘원(春園)의 명작(名作)>이라는 기획물로 1994년까지 전집에 게재되었던 작품들이 현재까지 출판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까지 춘원에 관한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특히 미발굴되었던 춘원의 문장이 발견·보고³⁹⁾ 되고 있다. 1963년

38) 삼중당 간행 『이광수 전집』이 연구자료로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종욱, 「우리는 얼마나 틀린 『무정』을 읽고 있나」, 『문학사상』 제49호(1976), 366-377쪽; 전명수, 「『무정』의 판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이광수 전집』이 당시 편집방침에서 편집위원들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광수 작품의 객관적 실체를 변형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광수의 저작을 좀 더 광범위하게 포섭하고 객관적으로 분석, 조명할 수 있는 21세기 이광수 전집의 새로운 간행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 근대소설 100년사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서 이광수의 작품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새로운 이광수 전집 간행은 시도할 가치가 있다. 50년 전에 완간되었던 삼중당의 『이광수 전집』이 한국 근대문학사의 역사적 사건이었듯이, 새롭게 간행될 이광수 전집 또한 미래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9) 최근에 발간된 최주한·하타노세츠코 편, 『이광수 초기문장집』 I·II(소나무, 2015). 같은 저서가 대표적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三千里』 제7권 제6호, 1935, 8-9쪽.

최주한·하타노세츠코 편, 『이광수 초기문장집』 I·II, 소나무, 2015.

2. 논문

강영미, 「정전과 기억: 남북한 시전집의 김소월 시 등재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9권 제3호, 2016, 267-295쪽.

강진호, 「한국 문학전집의 흐름과 특성」. 『돈암어문학』 제16집, 2003, 355-389쪽.

권보드래,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승고」. 『상허학보』 제37집, 2013, 279-320쪽.

김남전, 「文藝時感(5-7): 李光洙 全集 刊行의 社會的 意義」. 《朝鮮中央日報》, 1935년 9월 5-7일자.

金東煥, 「全集 刊行의 辭」. 『三千里』 제7권 제6호, 1935, 6쪽.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의 정전 만들기와 번역: 새로운 여성문학 선집 발간을 위한 시론」. 『비교한국학』 제21권 제2호, 2013, 39-65쪽.

김중수, 「1950년대 출판시장에서 이광수의 위상」. 『우리문학연구』 제43집, 2014, 359-383쪽.

김종욱, 「우리는 얼마나 틀린 『무정』을 읽고 있나」. 『문학사상』 제49호, 1976, 366-377쪽.

노양환, 「위대한 민족유산의 이광수전집」. 『기러기』 제165호, 1979, 45-48쪽.

문영진, 「김동인 소설의 정전화 과정: 회고에서 교육장으로의 진입까지」.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제도』. 소명출판, 2008.

박숙자, 「1950년대 '문학전집'의 문화사」. 『서강인문논총』 제35집, 2012, 83-123쪽.

송건호, 「분단 42년과 나의 독서편력」. 『역사비평』 제1집, 1987, 323-333쪽.

李光洙, 「最近朝鮮의 轉變 25年間-朝鮮文學의 發展, 庚戌以來 25年間」. 『三千里』 제6권 제7호, 1934, 76쪽.

이종호, 「1950-70년대 문학전집의 발간과 소설의 정전화 과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장수경, 「아동문학전집에 나타난 문화적 상상력과 정전 구성에 대한 욕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1집, 2012, 7-42쪽.

전명수, 「『무정』의 판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정비석, 「개인 전집 간행에 신기원」. 《경향신문》, 1963년 11월 27일자.

정진석, 「巴人 金東煥과 『三千里』」. 『관훈저널』 제63집, 1996, 210-241쪽.

조동일, 「내 인생의 책들」. 《한겨레신문》, 1993년 9월 3일자.

조은숙, 「해방-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아동문학전(선)집 편찬과 정전화」. 『한국문

- 학이론과 비평』 제58집, 2013, 259-286쪽.
- 차혜영, 「한국 현대소설의 정전화 과정 연구: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지배이데올로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제18집, 2005, 157-181쪽.
- 천정환, 「한국문학전집과 정전화: 한국문학전집사(초)」. 『현대소설연구』 제37집, 2008, 85-124쪽.
- 최주한, 「이광수 문장집의 어제와 오늘」, 『근대서지』 제12집, 2015, 231-245쪽.
- 최호석, 「영창서관의 고전소설 출판에 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37집, 2010, 349-379쪽.
- 편집부, 「春園文壇生活 20年을 機會로 한 文壇回顧 座談會」. 『三千里』 제6권 제11호, 1934, 62-71쪽.
- _____, 「書籍市場照査記, 漢城, 以文, 博文, 永昌 등 書市에 나타난」. 『三千里』 제7권 제10호, 1935a, 136-139쪽.
- _____, 편집부, 「全集에 대한 社會人事의 辯」. 『三千里』 제7권 제6호, 1935b, 10-21쪽.
- _____, 「機密室-우리社會의 諸內幕」. 『三千里』 제11권 제3호, 1940, 27쪽.

부 록

표1-『춘원이광수걸작선집(春園李光洙傑作選集)』(永昌書館 刊)

번호	작품명	간행연도	저작, 판권 사항
1	半島江山	1939	저작 검 발행자 신순석 ⁴⁰⁾
2	隨筆과 詩歌	1939	저작 검 발행자 신순석
3	文學과 評論	1940	저작 검 발행자 신순석
4	春園短篇小說	1940	저작 검 발행자 신순석
5	삼봉이네집	1941	저작 검 발행자 大山治永 ⁴¹⁾

표2-『춘원문고(春園文庫)』⁴²⁾(文宣社 刊)

번호	작품명	최초 간행연도	저작, 판권 사항
1	再生	1955	
2	꿈	1955	저자 이광수 발행인 문순성
3	春園詩歌集		
4	詩集 사랑	1955	발행인 문순성
5	파리·無明	1955	저자 이광수 발행인 문순성
6	無情		
7	사랑의 東明王	1955	저자 이광수 발행인 문순성
8	麻衣太子		
9	隨筆 病床錄		
10	隨筆 돌벼개		
11	春園評論集		
12	元曉大師		

40) 신순석은 이광수가 설립한 흥지출판사의 발행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1937년에 간행된 『문예독본』의 서문에서 이광수는 자신의 친구인 신순석의 권유로 책을 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939년부터 영창서관에서 간행한 『춘원이광수걸작선집(春園李光洙傑作選集)』의 저작 검 발행자로 이광수가 아닌 신순석이 기재된 것은 1937년 6월 동우회사건으로 피검된 이광수의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신순석을 내세워 자신의 저작출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저간의 사정을 미루어볼 때 허영숙의 병원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판권을 신순석에게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1) 오야마 치에이(大山治永)는 영창서관의 사장이었던 姜義永의 일본 이름이다.

42) 문선사의 『춘원문고(春園文庫)』는 1955년 7월 15일에 발행한 『꿈』을 시작으로 1955년 10월 30일 7권 『사랑의 동명왕』까지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8-12권은 기획만 하고 실제 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생(再生)』, 『춘원시가집(春園詩歌集)』, 『무정(無情)』도 발간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표3- 『춘원선집(春園選集)』(光英社 刊)

번호	작품명	최초 간행연도	저작, 판권 사항
1	麻衣太子	1956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2	돌벼개	1956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3	元曉大師	1956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4	病床錄	1956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5	無情	1956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6	꿈	1956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7	春園詩歌集	1957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8	春園短篇小說集	1957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9	흙	1957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10	有情	1957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11	사랑	1957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12	異次頓의 死	1957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13	春園書簡文範	1957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14	世祖大王	1957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15	端宗哀史	1957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16	一說春香傳	1957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17	許生傳	1958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18	文學과 評論	1958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19	그 女子의 一生	1958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20	그의 自敘傳	1959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21	再生	1959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22	李舜臣	1956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23	愛慾의 彼岸 상·하	1959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24	사랑의 東明王	1959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허영숙

표4- 『이광수 전집(李光洙 全集)』(三中堂 刊)

번호	작품명	최초간행년도	저작,판권사항
1	無情·開拓者· 初期의 文章	1962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2	再生·삼봉이네집· 革命家の 아내	1963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3	許生傳·一說 春香傳· 千眼記	1962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4	麻衣太子·先導者	1963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5	端宗哀史·世祖大王	1962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6	흥·無明·鬻庄記	1962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7	그 女子의 一生· 사랑의 다각형	1963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8	有情·愛慾의 彼岸 외	1962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9	異次頓의 死·그의 自敘傳	1963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10	사랑·꿈	1963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11	元曉大師·나	1962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12	사랑의 東明王·李舜臣 외	1962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13	島山安昌浩·人生的 香氣· 나의 告白·一事一言	1962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14	少年의 悲哀·돌베개 외	1962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15	春園詩歌集·詩集사랑 외	1963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16	文學評論·自作의 辯 외	1963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17	子女中心論·民族改造論 외	1962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18	金剛山遊記·五道踏破旅行· 春園書簡文範	1963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19	文獻·日記·補遺 ①	1963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20	年譜·總索引·補遺 ②	1963	저작자 이광수 발행자 서재수

국 문 초 록

이 글은 1935년부터 1963년까지 기획·간행된 이광수 전(선)집의 출판 활동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근대 출판시장에서 전개된 이광수 전(선)집 간행의 역사를 재고하여 한국 근대문학 작가의 전집이 구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0여 년 동안 이광수 저작들은 판권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작품이 선별된 전집이 구성되었다가 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으로 전 작품을 포섭한 전집 간행이 가능하게 되어 1963년에 『이광수 전집』이 완간되었다. 이광수의 전(선)집의 제작은 출판업자-유족-문인들의 협력으로 완성되었고 이광수 전(선)집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광수는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하게 구축하게 된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전 작품을 아우르는 전집 간행 과정에서 그의 친일행적은 은폐되고 한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정전의 작가로서 정립된다.

이광수 저작을 중심 콘텐츠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출판업자들의 기획과 이광수의 문학적 업적을 집대성하는 작업을 근거로 한국 근대문학을 역사화하고 세계문학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문학가의 이념, 이광수의 복권을 실현하겠다는 유족의 의지가 이광수 전집의 구성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이광수 전(선)집 간행의 역사는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7. 3. 19.

심사일 2017. 3. 31.

게재 확정일 2017. 5. 24.

주제어(keyword) 이광수(Gwang-su Yi), 전(선)집(complete and selected collection), 선별(selection), 판권(copyright), 저작권법(copyright law), 전 작품의 포섭(inclusion of whole works), 김동환(Dong-hwan Kim), 출판시장(modern publication market), 삼천리사(三千里社, Samcheoli Book Company), 삼중당(Samjung Book Company).

Abstracts

On Making Complete and Selected Collection of Gwang-su Yi in Modern Publication Market

Kim, Jong-soo

This article has empirically explored what had been happened in publishing activities of Gwang-su Yi's the complete and selected collections from 1935 to 1963,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making modern Korean writers' complete collection concretely.

During 30 years from Dong-hwan Kim's try who was a writer and owner of Samcheoli Book Company, Gwang-su Yi's works have been gone through selected process by copyrights owned some book companies or inclusion of whole works by copyright law established in 1957 for making Gwang-su Yi's complete collection published by Samjung Book Company in 1963, that had been collaborated with publishers, writers and his widow and resulted in constructing his important position of modern Korean literary history as a pioneer, firming up his popularity as well as being concealed of his pro-Japanese activities in the meantime.

It is analyzed for making complete and selected collection of Gwang-su Yi in modern publication market had been acted by multiplicative factors, publishers' promotions who had wanted to maximize profits, and ideologies of writers who had need to make modern literary history as well as reach to world literature, and will of his widow who had wanted to fulfill the reinstatement of Gwang-su Yi. It could be a important part of modern Korean literary history for understanding of making complete and selected collection of Gwang-su Yi in modern publication market.